

전 남

‘농작물 3災’ 작황 부진 농가 시름

(병해·일조량 부족·폭우)

과일·채소값 고공행진...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비상

배·매실·단감·무화과 병해 피해 커

올들어 병해와 집중호우,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또 지난달 폭우로 배추, 무 등 과채류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고공행진’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대목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봄 저온현상으로 빗어진 병해를 시작으로 최근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농작물 작황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은 병해 피해가 심각해 도내 과수 재배면적의 27%인 4569ha가 피해를 입었다. 작물별로는 배 1391ha, 매실 788ha, 단감 647ha, 유자 585ha, 무화과 248ha 등의 순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전북에서도 밀 재배면적의 60%가 병해를 입었으며 과일나무는 9%가

동해(冬害)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배·사과·복숭아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冬害)는 농작물이 추위로 얼어서 입는 피해를 말하며, 병해(病害)는 이상저온 등 갑작스런 기온 변화로 발생하는 피해다.

전남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일조량 부족 피해가 덜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농작물의 특성상 가격 상승의 여파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일기 불순으로 농작물이 부

실해되면서 최근 채소와 과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갑자기 폭염이 시작되면서 부실해진 농작물이 병해충에 감염될 우려가 높아져 농가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의 배춧값은 포기당 1786원으로 전년대비 48.7%가 올랐으며 상추는 100g당 1061원으로 지난 달 하순보다 47.6% 급등했다.

전남은 병해로 배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30% 안팎으로 감소하면서 추석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나주배농조합의 한 관계자는 “병해로 배꽃이 피지 않으면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추석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여름 들어 계속된 폭우와 일조량 감소로 배와 주요 밭작물이 웃자라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작물 작황 부진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달가량 남은 이번 추석에는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구례 산수유 가공식품 日에 대량 수출

클러스터사업단·日 회사 계약 10월 첫 물량 20만달러 어치

구례 특산 산수유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다.

구례산수유 클러스터사업단은 구례 산수유 환(丸)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신기단’이 오는 10월께 일

이는 사업단이 지난 1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리브21’ 회사와 3년간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첫 수출 물량은 20만달러 어치다.

산수유 가공식품이 일본 등에 수출된 사례는 종중 있으나 아주 소량이었고 이처럼 대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기단은 구례 산수유의 부가가치

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구례군, 농협 식품안전연구원, 순천대, 구례농협, 생산농민 등 9개 기관이 공동출연해 구례산수유 클러스터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제조한 건강 기능식품이다.

사업단 과대호 사무국장은 “리브21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건강·미용·모발제품 회사로 1800개 일본 내 점포망에서 신기단을 판매할 것으로 안다”며 “TV광고와 별도법인 설립도 계획할 정도로 신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 전망이 아주 밝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 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73%인 연간 170t이 생산돼 연간 22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효과 농산물로 구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옥수수 연 2회 수확 가능 기술 개발

도농기원 싹연구소

사료용 옥수수를 연중 2차례 농에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축산농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싹연구소는 사료용 옥수수 2기작 기술을 개발, 4일 무안군 몽탄면 싹증포장에서 평가회와 수확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개발된 2기작 옥수수 재배기술은 논 재배에 적합한 ‘광평옥’ 품종을 이용해 옥묘(3월 하순)→정식(4월 중순)→1차수확(8월 상순)한 후 다시 옥묘(7월 중·하순)→정식(8월 상순)→2차 수확(11월 상순)하는 체계

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실증지역인 몽탄 황금한우작목반(회장 고봉석)을 중심으로 옥수수 2기작 기술을 적용, 확대 재배해 남부지역 옥수수 조사를 자급을 향상해 축매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진경 연구사는 “이번 개발된 2기작 재배기술을 활용하면 10a(300평)당 연간 10t 이상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해 한번 재배하는 것에 비해 70% 정도 증산된다”며 “축산농가는 양질의 조사료 확보와 사료비 절감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윤선도 작품 세계 한눈에 본다

완도군, 보길도에 관광정보센터 건립

완도군은 보길도 고산 윤선도 유적지의 탐방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한다.

세연정 인근에 22억원을 들여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정보센터는 전통 한옥 형태의 전시동과 관리실, 매표소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보길도의 자연과 윤선도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밀 계획이다.

보길도는 윤선도가 제주도로 가던 중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보길도에 정착,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연과 벗 삼아 생활하면서 어부사시사를 창작했던 유서깊은 곳이다. 세연정, 곡수당, 낙서재, 동헌석실 등 윤선도가 건립한 유적들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월 조경 중 백미로 꼽힌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01년부터 남해안관광 벨트 개발사업비 등 118억원을 들여 세연정 등 주요 유적을 발굴·복원했다.

/서취재본부=정은조기자 jechung@

“가을 채소 재배면적 줄이세요”

올해 과중할 가을무와 배추(월동배추 포함)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농정 당국은 이에 따라 농민들에게 “적정량을 재배해 줄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최근 가을무와 배추 재배의향을 조사한 결과 가을 무는 지난해보다 6%, 가을배추는 12% 각각 증가한 반면에 겨울배추는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계 증가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평년보다 15%정도 많은 면적이다.

채소류는 특성상 다른 농산물보다도 가격 탄력성이 매우 커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조금만 증가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조금만 부족하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 적정재배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채소류 출하 흐름은 강원도나 충청지역 일부 고랭지 배추 거래 가격

이 높게 형성되고, 중부지방산이 앞당겨 출하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중과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중부권 호우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앞으로 일기도 불투명한 만큼 올해 가을무, 배추는 지난해 수준으로 재배하는 게 적절하다”며 “공급과잉시 가격 지지를 위해 시군별로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감치공장 등에 계약재배를 확대토록 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무·배추 과잉 생산 우려

전남도, 적정량 재배 권장

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가을무의 경우 경기·강원이 3%, 충청 7%, 호남 4%, 영남 4% 증가할 것으로, 가을배추는 경기·강원 6%, 충청 12%, 호남 13%, 영남 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을무와 배추의 재배의향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등으로 최근 채소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월동배추는 지난해 재배면적이 2009년보다 크



벌교 갯벌서 레저 뱃배대회 즐긴다

지난 6일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어촌체험관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뱃배대회’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 가족들이 뱃배대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레저 뱃배는 교목을 캐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던 전통뱃배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장비로 개발한 것이다.

(보성군 제공)

여수 박람회 특산품 4종 선정

돌산갯·해풍속·쥐치포·남해 흑마늘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공식 특산품 4종이 선정됐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는 “여수박람회 공식 특산품으로 여수 돌산갯, 거문도 해풍속, 쥐치포 등 여수지역 특산품 3종과 경남 남해 특산품 흑마늘 등 총 4종의 농수산물을 선정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특산품은 제조·판매 시 여수박람회 명칭과 엠블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돌산갯은 돌산도의 기후와 알칼리성 토양에서 자라 섬유질이 부드럽고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김치다.

거문도의 청정한 해풍과 공기를 마시며 자란 거문도 속은 주로 속차용으로 평평이 나왔다.

쥐치포는 여수 바다에서 잡힌 쥐치를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으로 말린 것으로 육질이 두껍고, 좋은 천일염으로 간을 해 맛있게 깔끔하다.

남해의 특산인 흑마늘은 바다와 맞닿은 밭에서 자라 강하고 매운맛이 특징이다. 여수박람회조직위는 특산품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19일까지와 다음달까지 등 총 2차례에 걸쳐 품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 223-1772, (H)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주차장용지·이주주택지·협업주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지: 10980㎡, 임야: 1337㎡, 케모아일 23평형 3개동, 케모아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 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 수려한원경, 기도원적합, 여유대지, 광역고속도로, 매매가: 13억(근저당29억9천만원) • 실투자금: 11억4천1천

모텔 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선면 원산리

• 대지: 1038㎡, 건물1095㎡,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선공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소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만원) • 실투자금: 6억4천

토지 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메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 빌라, 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대지: 1425㎡ 투자적합 도로인접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2억2천5백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 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 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 전. 면: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일달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전북순창군 북흥면 담동리 2차선국도변정

• 전. 면: 16998㎡ 단독주택 97.7포함 포도나무 2000주 포함 • 매매가: 3억6천만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자연녹지지역

• 전: 1502㎡ 현유실수 재배(배나무)

• 나노 산업단지계획대로 현재포장도로접 투자기회유망

• 매매가: 2억3천만

가든 매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22번국도점

• 대지: 1646㎡, 전: 610㎡, 기든건물: 271.5㎡, 단독주택: 143.55㎡

• 매매가: 6억, 풍3억3천만원, 실투자금2억7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일곡지구 30m도로 버스 승강장옆 상가건물 보충금4억 월세1,540만원 매매가25억5천만 ☆. 마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충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 광공간 대로면 운전저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 광공간 대로면 4층건물 매매가 8억5천만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322㎡ 건물: 95㎡ 매매가: 5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1,330㎡건: 60㎡ 매매가: 2억8천만원

대지, 전, 담, 임야

☆. 광공간 대로면 대지: 370㎡ 매매가: 13억5천 ☆. 마곡동 담3,000㎡ 매매가 7억원 ☆. 벽진동 담5,600㎡ 매매가 11억원 ☆. 금호동 담1,600㎡ 매매가 4억2천만원 ☆. 오지동 대지506㎡ 매매가 4억6천만원 ☆.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점 대지 677㎡ 매매가 m당 3백만원 ☆. 압촌동 정학초마을대: 3,600㎡ 매매가 4억3천 ☆.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담1,438㎡ (원룸적합) 매매가 m당 20만원 ☆. 광산구 우산동 담279㎡ 매매가 4,200만원 ☆. 장성남면 임야: 13,500㎡매매가: 4억5천만원

주유소매매

☆. 광산구 오운동 시외에서 시내방향 2복식3대 매매가 9억원(면세유 디젤 판매가능)

062-374-5945

010-3162-498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원동부지, 북구 삼각동 180평 대출1억6천 매도2억천, • 곡성군 임원 금호하이퍼 입구 2차선도로접 관내지역 759평 기는 공장동 다용도 대출6천 매도9천만원 • 충장로5가 수퍼 대지 27 공시지가 1억9200 매도1억8천 • 북구아파트단지입구 상가동지하 113평 교회적합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비행장, 골포장 부근 비닷가 대지 526 건평 199 기는 펜션 등 복합 대출 3억 교회적합 6억 • 금남로 칠영금고점 대로면 땅 247평 중심 상업지역, 영업할 필 공시지가 13억 투자기회 좋음 매도16억 • 월산동 카센터 대지 34 건평 36 공시지가 매도 9550만원 •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324 김철15억4천 임대된곳은 전세56천만원 월560만원 대출5억5천 매도9억3천 • 금남로5가 대로면 대지496 건평372 공시지가 53억3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0억3천 •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빌 율리대기주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금매9억3천 교회가능 • 대인동 계림시장옆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 중흥동 사찰 대지 242 건평 487 공시지가 496천 매도7억4천

매도·교환

• 전원주택지, 담양군 봉산면 쌍교부근마을 대지168평 공시지가 매도 34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사할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대 부근 1840평 4억9천

T. 222-4994, 010-2632-5659 동구 금남로5가